

여백과 농담 사이... 먹빛으로 풀어낸 봄의 사유

2026 은암미술관 봄맞이 기획전 '淸遊 정유'...내달 3일까지

서로의 기운 나누며 공동의 숨결로 확장된 치유·생성의 힘 예술 매개 공동체의 삶속 오늘, 다시 살아나는 전통의 미학

새봄을 맞아 은암미술관이 문인화의 정신과 창작의 현장을 함께 조명하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詩)·서(書)·화(畫)가 한 화면 안에서 호흡하는 문인화의 본질을 오늘의 감각으로 되짚고, 예술이 공동체와 만나는 순간까지 함께 보여주는 자리다.

은암미술관은 금봉미술관과 함께 오는 4월3일까지 은암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 2026 은암미술관 봄맞이 기획전 '淸遊 정유'를 연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휘호행사 '먹풀어 흥을 나누며'를 열고 문인과 예술의 삶이 있는 순간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이번 전시는 문인화 예술의 원형인 시·서·화의 조화를 통해 예술이 삶의 태도

이자 정신의 수양이라는 점을 환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면 위에 번지는 먹빛과 필획의 흐름, 여백 사이의 호흡을 통해 사유의 깊이와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려는 취지다.

원로 초대작가인 금봉 박행보는 "淸遊(淸遊)는 맑은 정신으로 예술과 자연을 거닐며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동양적 미학의 한 경지"라며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결을 고요히 씻어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창작의 숨결이 피어난다"고 말했다.

휘호행사 '먹풀어 흥을 나누며'는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붓을 들고 서로의 기운을 나누는 창작의 장으로 꾸러졌다. 완성된 작품만이 아니라 창작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데 의미를 뒀다.



금봉 박행보작 '설중매'

한상운 금봉미술관 관장은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붓을 들고, 먹의 농담과 필획의 리듬 속에서 서로의 기운을 나누는 순간, 예술은 공동의 숨결로 확장된다"며 "완성된 결과보다 더욱 깊

이 남는 것은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생동하는 떨림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전통 문인화의 계승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확장하는 데에도 방점을 찍는다.

전통을 고정된 형식이 아닌 오늘의 감각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정신으로 바라보고, 예술이 공동체의 정서를 잇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참여작가는 금봉 박행보, 우송현 김영삼, 우석 박신근, 우촌 백준선, 묵선 위오남, 치봉 윤영동, 현곡 이봉재, 정암 이병오, 나성 이영임, 여촌 이상태, 정현 이재분, 담헌 전명옥, 금초 정광주, 고묵원 정석훈, 봉산 정재경, 고현 조창현, 먹당 한상운 등 17명이다.

채종기 은암미술관 관장은 "새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淸遊 정유' 기획전대전은 맑은 사유의 유영이자, 예술이 지닌 치유와 생성의 힘을 나누는 자리"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여백과 농담 사이를 거닐며 자신만의 맑은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지난 5일 은암미술관에서 열린 봄맞이 '먹풀어 흥을 나누며' 휘호행사

고불매 향기 속 봄맞이... '선·매·향' 축제

천년고찰 백양사에서 매화 향기와 선 명상이 어우러진 봄맞이 축제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암산 백양사(주지 무공스님)는 오는 28일 장성 백양사 고불매 일원에서 '2026 백양사 선·매·향(禪·梅·香) 축제'를 개최한다.

백양사가 주최하고 BTN불교TV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잠시 멈춤, 깊이 머무는 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관람 중심의 형식에서 벗어나, 축제 현장에 머물며 심신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몰입형 명상 페스티벌'이다.

축제의 중심은 호남 5매(五梅) 가운데 하나이자 천연기념물인 고불매다. 연분홍빛 매화가 피어 있는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인 '고불명상'이 상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자유롭게 참여하는 '선명상 자유체험', 짧은 시간 집중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5분 집중명상', 라이브 음악이 더해진 '힐링음악 선명상' 등 다양한 방식의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찰의 주요 공간과 명상을 결합한 '붓다 시리즈' 프로그램이 처음 선보인다. 오후 2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

오는 28일 백양사 일원...명상·매화 체험 결합한 힐링 페스티벌



백양사 고불매

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고불매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내외빈이 참여하는 '3분 명상'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명상 스탬프 투어, 매화차 나눔, 매화마켓(먹거리·특산물), 백양떡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

이 봄의 정취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공스님은 "이번 축제는 고불매의 역사성과 자연의 생명력을 현대인의 삶 속 회복의 순간으로 연결하는 자리"라며 "일상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매화 향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돌의 흔적으로 성찰하는 존재의 가치

이명숙 초대전 'STONE TRACE'...내달 17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돌의 흔적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4월17일까지 이명숙 초대전 'STONE TRACE'를 개최한다.

이명숙 작가는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닌 돌을 별자자 행성, 하나의 소우주로 바라본다.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없는 돌이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인간 삶 역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한다.

그의 작업은 섬유를 염색하고 장지에 배접한 뒤 황토와 백토, 분체와 석채 등을 혼합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탑을 쌓으며 소망을 담은 행위처럼, 작가 또한 작업 과정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화면에 울림을 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돌을 중심으로 나비와 꽃, 식물, 동물 등을 함께 그린 작품들이 소개된다. 돌이 나비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처럼 표현되듯, 인간 역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만으로도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감성적 메시지를 전한다.

김차순 우제길미술관 관장은 "이명숙 작가



'행성_복사꽃 피는 봄'

의 문인화는 한 가지 사물에 몰입해 담백하고 간결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의화(寫意畫)라며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대화하듯 표현된 작품을 통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조선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3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2024년 신축한 담양상설시장과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에 200여분 이상의 상인들이 장터를 마련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1. 담양상설시장 - 매일(휴무 : 2, 4째주 월요일 / 단, 장날일 경우 화요일)
2. 담양시장 - 매달 2일, 7일
3. 창평시장 - 매달 5일, 10일
4. 대전시장 - 매달 3일, 8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담양군> 광고문의 : 062)650-2099